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25 ~ 3/3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지금 여기 깨어있기	법륜스님	정토	6	숫따니빠따 (배알리원전번역)	일야스님	불광출판사
2	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네	법생, 혜호, 여백	법음	7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법생, 혜호	민족사
3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	법인스님	불광출판사	8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이제열	모과나무
4	인공지능 붓대를 꿈꾸다	지승호	운주사	9	뒤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중	용화
5	이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동봉스님	민족사	10	젠 만다라 컬러링북	Dessain of Tola	담엔북스



행복하고 싶다면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저자의 상담실에 어느 날 한 여성이 예약도 없이 찾아왔다. 그 사람은 여러 해 전, 공무원 시험에 계속 응시했지만 모두 합격하지 못해 다른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하다 찾아온 취업 준비생이었다. 내담자의 전생을 알아 조선 후기의 삶에서 지방 관아 현감으로 일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권한을 오용하는 장면이 보였다. 심각한 부정부패까지는 아니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었던 것이다. 누군가 편의를 얻었기에 다른 사람이 집을 대신 쳐야 했다. 그때 지은 공무수행의 잘못이 현생서 공무원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 카르마(업)를 정화시켜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저자는 지금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의 시간이 필요하고 5년 정도 걸린다고 상담해주었다. 그리고 나서 6년 뒤, 그때 상담한 공무원시험 준비생이 다시 방문했다. 얼마 전 7급과 9급 시험 모두에 합격했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늘 가슴 한쪽에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전생 리딩이 말해주던 것처럼 업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봉사하고 인내하면서 생활하니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전생 리딩 상담가 박진여씨. 저자는 타인의 전생을 읽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내담자의 깊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그 무의식 심층에 깊숙이 저장된 영적 정보를 찾아내 내담자의 영적 정보를 읽어내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많은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서 흘러간다. 마치 내담자 자신이 지난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말이다. 저자는 그 순간 내담자의 기억을 포함한 일체 정보를 그 사람이 공유하는 공명 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읽은 전생 정보 가운데 이번 생과 밀접한 내용만을 편집해 내담자의 고민에 답한다.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
박진여 지음
김영사 펴냄
1만 2800원

전생은 물론 다른 이들의 전생까지 읽는 경험한다. 여기서 알게 된 파동 명상 전문가 법운 최영식 선생과의 만남은 저자의 삶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다. 법운 선생은 저자에게 특별한 영적 재능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고, 본격적인 가르침과 함께 기도 명상 수행을 통해 능력을 더욱 발전시킨다. 결국 저자는 깊은 명상 의식 상태에서 내담자의 영적 정보가 저장된 차원에 접속해, 30초에서 1분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에 상대방의 전생 정보를 읽어낸 후 자세하게 풀어내는 방식의 리딩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2000년부터 15년 동안 전생 리딩으로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내담자들의 전생을 읽고 상담한 내용과

15년간 전생리딩 경험의 기록 묶어 1만5천명 내담자 상담 사례 소개 고통의 원인 설명하고 삶방향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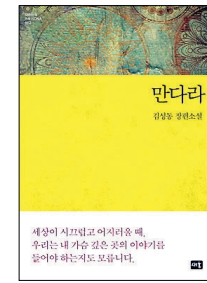
그 과정에서 배운 삶의 메시지들을 기록한 것이다. 현생서 우리가 겪는 문제들에 대해 보다 큰 차원에서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고 진정한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안내한다.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삶의 고단함은, 우리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는 시점에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온 영적 약속의 결과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떤 계기로든 현생의 고난을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보면 되면 삶은 놀라게 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저자는 오랜 리딩 경험이 가르쳐준 행복의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선한 마음으로 타인을 사랑하며, 자신이 가진 바를 이웃과 나누라"고. 내담자들의 전생을 리딩하면서 그녀가 거듭 확인하는 사실은, "참된 변화는 다름 아닌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평범한

진리이다. 어느 가을 한 40대 여성이 찾아와 자신이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리딩을 시작하자 척박한 사막 같은 곳에 자리한 허름한 집이 나타난다. 부모가 일찍 죽거나 미아가 된 아이들이 키우는 고아원이었다. 아이들을 돌보다기보다 입양 보낼 때까지 잠시 머물게 하는 곳이었다.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선택된 아이들은 그곳을 떠났다. 리딩은 내담자가 그 시설의 책임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대부분 여자아이를 우선 데려갔는데, 그중 어떤 사람이 몰래 돈을 쥐여주는 모습도 보였다.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었지만, 문제는 입양된 다음이었다. 다음 리딩 장면서 아이들이 착취당하고 고통받는 모습이 나왔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농노동을 하고 여자 아이들은 남자 주인에게 성적으로 농락당하는 장면도 보였다. 노예처럼 밭에 쇠줄을 달고 일하는 모습도 보였다. 불편하고 잔인한 리딩 결과에 내담자와 중간서 안내하는 법운 선생, 저자 박진여 선생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다시 리딩이 이어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번 생은 자신이 뜻해서는 아니지만, 자신이 돌보던 고아들이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힘든 노동과 성적 착취로 고통받았던 지난 생의 카르마와 연결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는 그러한 카르마를 정화하기 위해 희생과 봉사,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 영적 목적이 있습니다." 리딩을 마치자 내담자 직업을 미리 알던 중간의 법운 선생이 의아해하며 저자 박진여 선생에게 반문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이분은 존경받는 변호사입니다. 훌륭한 인품으로 사회적 역할까지 하며 봉사하는 분인데, 어떻게 그런 전생 리딩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저자는 법운 선생에게 이렇게 답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카르마를 갖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업을 정화하라는 의미에서 현생에서 변호사라는 역할이 주어졌 것입니다." 법운 선생이 다시 저자를 다그치려는 순간 내담자 여성이 말했다. "맞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아와 성적 착취를 당한 여성들의 무료변론을 해왔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입양돼 성적 착취를 당한 여성을 무료 변호해준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현재까지도 계속 그 일을 했습니다." 내담자는 우연히 그 일을 시작했고 부락

이 오면 그런 변화를 거절할 적이 없었으며, 그렇게 무료변론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면서, 정작 사무실 직원들의 급여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전생을 알면 자신이 왜 이렇게 고단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상담을 청했다고 했다. 이 책의 서문은 다양한 유형의 종교 체험을 연구한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성혜영 교수가 썼다. 저자의 리딩 과정을 여러 차례 직접 지켜본 종교학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30% 가까이 영혼을 믿지만, 실증주의적 과학이 지배적인 때에 전생이나 윤회에 대한 주제는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학술적 연구가 아닌 전생을 실제로 읽어내려는 사람의 얘기는 더욱 그렇다. 그러다 보니 책 서문을 쓴다는 것이 대학에 몸담은 학자로서 부담스런 일임에도 기꺼이 응했다. 성 교수는 "박진여 선생은 자신의 오랜 전생 리딩이 준 통찰을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요약한다. 어려운 이웃들을 기꺼이 돕고,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함께 나누라. 그런 진심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이 책의 상담 사례들은 흥미롭게 읽힌다. 매우 다양하다. 사랑과 결혼, 직업과 각종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부터 성소수자 문제와 불륜, 각종 사고의 원인과 질병, 그리고 미래에 대한 궁금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의 복합판이라 할 만하다. 반면 메시지는 진지하고 간명하다. 다시 한번 나 자신과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게 한다. 태초부터 인류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살아왔다. 전생을 아는 것은 이 의문을 해결하는 돌파구가 된다. 전생 리딩은 세상에 태어날 때 저마다 풀어야 할 카르마의 숙제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생에서 부정적 삶을 살았다 해도 현생에서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고 타인을 배려하면 어느 순간 힘든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 상태가 바뀌고 카르마가 정화되면서 삶의 전체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 지금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으로 인해 부정적 카르마가 소멸되고 정화된다면, 그 사건들은 오히려 카르마의 엄청난 사슬에서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고마운 계기가 된다고 말한다.

20대 젊은 날, '나'의 길을 고민한다

만다라
김성동 지음 | 새움 펴냄 | 1만3천원



한국 불교소설의 백미로 평가받는 김성동의 <만다라>는 저자가 20대 젊은 날에 겪은 삶에 대한 번민이 고스란히 서린 '갯빛 노트'이다. 이 책에는 당시 산업화 병폐가 나타나던 한국사회와 속세의 가치를 탐한 불교에 대한 직관적 비판이 녹아 있다. 그러나 종교적인 내용들을 모른다고 해서 작품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만다라>는 불교라는 상자 안에 인생의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모색해 보려는 시도이다. 맹목적으로 불교의 교리가 주입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다라>는 작품에 사용된 불교용어를 접어두고 읽더라도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다. 때문에 다시 우리 곁을 찾은 <만다라>는 작품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힐링' 이상으로 자신의 내면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깨달음을 얻는 자, 그대가 곧 부처다
이야기는 역마처럼 떠돌다 벽운사에 집을 풀 출가 6년차의 젊은 수도승 법운(法雲)과 그곳에 머무르던 파계승 지산(知山)의 만남으로 시작된다. 운명인지 우연이었는지 모를 두 비구승의 만남. 그러나 지산의 괴팍한 행동들은 법운 스님을 비웃는 벽운사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런 지산 스님의 행동들도 재미있지만 법운 스님의 출가 배경도 이 소설에서 상당한 흥미를 끈다. 본래 그의 아버지는 정국인 어지러운 시절 좌익 정당의 간부를 지낸 마르크시스트였다. 하지만 현실과 이데올로기의 괴리를 깨닫고 평범한 서생으로 돌아와 자족하며 지냈다. 그러나 그것도 좌익 전력이라는 고찰에 끌려간 뒤 한국전쟁이 터져 다른 좌익들과 함께 처형당한다. 어머니까지 집을 나간 후 조종모택에 기거하던 법운 스님은 별당에 머물던 지암(智巖) 스님을 만난다. 지암 스님에게 "인간은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은 그는 이것에 인생을 걸어 보기로 하고 고행을 결심한다. 현실적 욕망과 종교적 가치사이의 변뇌 소설 속에는 종교적 수행, 가치와 상반되는 욕망 덩어리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육체, 재물, 혈연, 사회, 불교 교단에 얽힌 욕망들 사이에서 주인공 법운 스님은 갈등한다. 그중에서도 육욕과 자신의 파멸에 대한 욕망을 떨치지 못해 결국 구도자의 길에서 방황하는 법운 스님. 세속과 종교적 자유 사이에서 번민하는 지산 스님. 이 둘의 결말을 통해 세속적 고민 속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전해 준다.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만다라>가 처음 나왔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사람들은 어딘가에 의지하려고하고, 그것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수렴되기 쉽다. 이 작품에서도 지산 스님은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초심을 망가뜨린 채 파계승이 되는데, 이 행동 또한 자신의 내면이 어지럽기 때문에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고 수도승 본연의 길을 라곤 슬밖에 남지 않은 파계승의 삶에 우리 현대인의 삶도 투영돼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지산 스님은 어지러운 세상살이에 대한 답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말한다. <만다라>는 나를 망치는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좀 더 풍성하게 채워 줄 소설이다. <만다라>의 생명력 오래도록 지속 김성동의 <만다라>는 1979년 한국문학사서 출간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삼십삼, 삼십출판사, 푸른숲, 깊은강, 청년사를 거쳐 마침내 새움에서 '대한민국 스토리 DNA'로 거듭나게 됐다. 작품의 초판본이 나온 지 햇수로 36년이 지났지만 여러 출판사를 거쳐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작품의 힘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981년 임권택 감독에 의해 동명의 영화로 제작됐고 같은 해 각종 영화상을 휩쓸었다. 1992년 프랑스어 번역을 시작으로 영어, 독일어, 불가리아어, 스페인어 등으로 번역 출간되기도 했다. 김주일 기자

병신육갑을 하면 천당 가고, 병신칠갑을 하면 지옥 간다.

丙辛六甲 病神漆甲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한 필독서!
민족종교와 문화를 지키기 위한 필독서!
국가와 민족과 가정을 위한 필독서!

나 한사람의 방관도 깨닫고
다른 이웃의 방관을 깨닫게 합니다.

김종성 씀 / 값 17,000원(전면 칼라판)
불교서적 총판 운주사 (02-3672-7181) 서점에 있음. 디량주문(010-2465-1357)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